

<http://dx.doi.org/10.17703/JCCT.2023.9.2.269>

JCCT 2023-3-33

긍정심리학의 관점에서 본 공자의 회복탄력성에 대한 고찰

A Study on Confucius' Resilience from the Perspective of Positive Psychology

김점남*

Jeum-Nam, Kim*

요약 본 연구는 현대 긍정심리학적 관점에서 공자가 숭한 역경을 극복하고 수용하며 도약했던 힘의 원천, 공자의 회복탄력성의 요인을 알아보는 것이 목적이다. 공자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유교경전을 포함하여 사상적 측면(윤리, 정치, 교육 등)을 주로 다루어왔다. 이에 공자를 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재조명하고자 한다. 숭한 시련 속에서도 정신적, 신체적 한계를 수용하면서 자신의 불행을 딛고 사람이 지켜야 할 도덕과 가치를 전하면서 사람 속에서 진리를 실천할 수 있었던 긍정적 성품이자 강점을 오늘날의 긍정심리학에서 제시하는 역량 핵심개념과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공자와 관련된 자료는 『논어 論語』 『사기 史記』 『공자가어 孔子家語』 및 문헌 등을 참조하였다. 연구를 통해 공자의 최대 강점은 위기지학(爲己之學), 시중(時中) 공자의 핵심사상인 인(仁)과 충서(忠恕)로 배려 속에서 더불어 사는 인간관계로 입증되었다.

주요어 : 공자, 긍정심리학, 회복탄력성, 논어, 강점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factors of Confucius' resilience and the source of his strength through which he overcame and accepted numerous adversities and took a leap from the perspective of modern positive psychology. This study reexamines Confucius' life as a human being, accepting his mental and physical limitations despite numerous trials, overcoming his misfortune, conveying the morals and values that people must protect, and presenting the positive character of being able to practice the truth among people through today's positive psychology. It was compared with the core concepts presented in. References were made to materials and literature related to Confucius. Through research, Confucius's greatest strengths were proven to be human relationships living together in love and consideration, with Confucius's core ideology, benevolence and loyalty.

Key words: Confucius, Positive Psychology, Resilience, Analects, Strengths

1. 서론

디지털 사회로의 진입을 앞당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 상황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을 불확실성, 복잡성, 모호함, 가변성으로 대체하였다[1]. 첨단 기

*중신회원, 호원대학교 항공관광학과 교수
접수일: 2023년 1월 31일, 수정완료일: 2023년 3월 1일
게재확정일: 2023년 3월 10일

Received: January 31, 2023 / Revised: March 1, 2023
Accepted: March 10, 2023
*Corresponding Author: jnkim@howon.ac.kr
Dept. of Aviation-Tourism, Howon Univ, Korea

술의 발달, 인공지능과 공생하며 무한 경쟁 속에 스트레스, 좌절, 포기, 갈등, 불신과 불만 등으로 우리의 미래를 꾸려나갈 젊은 세대들이 암울함을 먼저 떠올리며 이해타산에 맞는 가치들만 이야기하고 있다. 기성세대인 우리들은 정해진 코스로 길 안내를 받으며 개인의 노력에 따라 사회적 체제 안에서 살아왔다. 우리들의 고민은 예상하지도 경험하지 못한 인공지능의 세상에서 젊은 세대들에게 삶의 방향성을 제대로 제시할 수 없다고 여겨져 성찰과 함께 성현(聖賢)의 삶 속에서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성현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살아가면서 깨달은 지혜를 시대를 초월하여 알려주기에 성현 중 '인간적인 삶'에 대하여 강조하였던 인간 공자의 삶과 사상을 중심으로 연구의 목적을 이루고자 한다. 공자가 살았던 난세의 춘추전국 시대와 오늘날 변화무쌍하며 불확실, 복잡, 모호한 시대와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

공자(孔子, Confucius B.C.551 ~ B.C.479)는 유교 사상을(儒敎思想)을 집대성한 인물로, 위대한 인격자로 존중받고 있는 성인(聖人)으로 남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살았을 것으로 여길 수 있지만, 실제로 공자의 삶은 남들과는 다른 출생[2-3]과 홀어머니 밑에서 고된 유년기 시절을 보내며 정치가로서 길을 걷지만, 당대의 현실 참여 관점에서 보면 공자의 삶은 실패의 연속이었다[4] 조국인 노나라에서는 제나라의 간섭으로 국정 쇠신의 꿈이 중단되어 망명 생활을 떠났다. 주유열국(周遊列國) 과정에서 공자는 여러 번의 위험한 상황과 죽을 고비를 겪으며 결국에는 정치의 꿈을 실현하지 못하고 다시 노나라로 돌아왔으며, 이곳저곳에서 정치적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또한 가족들의 죽음, 특히 외아들 리(鯉)의 죽음과 학문 계승자로 여겼던 제자 안희의 죽음, 제자 자로의 죽음을 지켜보며 슬픔에 겨워 울었으며, 제자 염백우가 문둥병에 걸렸을 때는 손을 잡고 한탄스러워 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인간으로서의 삶속에서는 실패와 좌절, 고통과 불행, 이런저런 역경들을 경험한다. 공자도 인간이었기에 슬한 시련을 겪었지만, 정신적 신체적 한계를 받아들이며 삶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불행을 감당하며 스스로를 다스렸다. 전승되어온 시(詩), 서(書), 예(禮), 악(樂)을 정리하고 역(易)을 정리하고 편찬하여 후학양성에 힘쓰며 높은 차원으로 승화하였다.

군자(君子)로서의 삶을 지향하며 마침내는 성인의 삶을

이룬 공자[4] 시련을 이겨낼 수 있었던 그 힘의 원천과 스스로에게 부여했던 가치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3대 성인(聖人)으로 추앙받고 있는 예수는 신의 계율에 따라 사후 '천국'에서 '영생'을 얻고, 석가는 '극락세계'에서의 '극락왕생'을 제시하였다. 반면에 공자는 사후세계를 제시하지 않고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인(仁)과 예(禮), 그리고 학문을 갈고 닦아서 군자(君子)로의 삶을 강조하였다. 오로지 사람 속에서 사람의 길을 구하고자 한, 공자의 '인(仁)'의 사상은 '충서(忠恕)'로써 인간을 향한 보편적 사랑을 말한다[5].

사람의 기본 도리로 긍정적 성품과 덕목을 서양의 긍정심리학이 지향하는 부분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기에 긍정심리학의 한 부분인 회복탄력성을 공자에 접목하여 인간의 긍정적인 성품을 이해하고자 한다.

연구의 단서를 찾기 위해서 『논어 論語』 [6] 『사기 史記』 『공자가어 孔子家語』 등 공자 관련 문헌 등에 나오는 공자가 겪었던 사례를 회복탄력성의 구성요소에 의거하여 분석하며 더불어 공자의 사상이 잘 나타나는 『논어 論語』 중심으로 공자의 사상을 현대적 함의로 해석하였다. 회복탄력성을 높이기 위해서 긍정적 성품을 계발하고 감정(역량)을 발휘하는 것은 개인의 행복뿐만 아니라 사회의 질서와 번영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개인이 지닌 긍정적 성품을 자각하고 계발하여 인간중심 가치사회로의 방향성을 논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II. 이론고찰

1. 긍정심리학의 개념 및 의의

1) 긍정심리학의 개념

긍정 심리학(Positive Psychology)[7-8]은 인간 심리의 긍정적 측면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통해 인간의 행복과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들에 관해 연구

하는 학문이다[9]. 긍정심리학이 왜 필요한지에 대하여 인간본성에 대하여 감사하는 관점의 함양을 제기한다. 보통 사람들이 지니는 강점과 미덕에 타고난 적응 능력과 여러 가지의 역경에도 불구하고 목적의식을 가지고 의연하게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심리학적측면에서 설명할 것인가에 대해 집중한다[10]. 인간의 강점과 미덕을 살펴보기 위해서 중국(유교 및 도교), 남아시아

(불교 및 힌두교) 및 서양(아테네 철학, 유대교, 기독교 및 이슬람교)의 철학 및 종교 전통을 조사하였고 도덕적 행동과 좋은 삶에 대한 질문에 용기, 정의, 인간애, 절제, 지혜, 초월이라는 6가지 핵심 덕목이 반복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11]. 우리는 살아가면서 좋은 일과 나쁜 일을 경험하고 주어지는 상황을 바꿀 수는 없어도 어떻게 수용하고 대처해 나가는가는 개인의 마음가짐과 인격에 따라 다르다.

오늘날까지 제기되는 근본적인 물음은 인간의 행복과 더불어 인간의 긍정적인 성품과 덕성은 무엇이며, 가난과 난관을 극복하게 만드는 인간의 특성은 무엇인가? 이다. 더불어 탁월한 성취를 이루거나 성숙한 인격을 지닌 사람들의 심리적인 특징과 관점을 통해서 그들은 어떻게 긍정적인 성품과 강점(능력)을 가장 잘 발휘 하는가에 주목하게 된다[12].

긍정심리학에서 회복탄력성의 의미 속에는 '주관적' 안녕감이 전제되어 있다. 스스로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을 통해 진정한 의미의 자신을 회복하는 것, 주체적인 삶을 살아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내포한다.

2. 회복탄력성의 개요

1) 회복탄력성의 개념

회복탄력성(Resilience)은 긍정심리학의 핵심개념 중 하나로,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해내는 개인의 심리적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다[13]. 회복탄력성의 선구연구자인 Werner & Smith는 회복탄력성을 위협 상황이나 심각한 역경과 충격적인 경험을 하였음에도 잘 적응하고 건강하게 발달하는 성장의 힘이라고 하였다. 또한 불행한 일에서 빠르게 회복하여 잘 적응하는 수준이라고 정의하였다[14]. 스트레스나 역경에 대한 정신적인 면역성이며[15] 회복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낙관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스트레스에 대처하고 스트레스를 극복한 후에도 더욱 향상된 능력을 발휘한다[16]. 스트레스나 역경과 같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그 환경을 스스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용하는 총체적인 능력이다[17].

또한 극복력, 탄성, 탄력성, 회복력 등으로 번역되기도 하며 심리학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별로 제 각기의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회복탄력성은 여러 분야에서 활용

되고 있으며 심리적 안녕감과 회복탄력성을 증진하여 교사의 삶의 질과 교육의 질 향상[18], 항공사 아웃소싱 직원을 대상으로 회복탄력성과 직업 만족에도 영향관계[19]가 있다. 어려운 상황과 스트레스에 처한 반응이 모두 부정적인 것은 아니며 개인이나 조직은 실패나 역경을 딛고 일어선다는 공통점이 있다[15-19].

2) 회복탄력성 구성요소

회복탄력성에 관한 많은 선행연구들이 있으나 대부분 보편적인 척도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레이비치와 샤테(Reivich & Shatte)[20]의 회복탄력성 지수 검사(RQT, The Resilience

Quotient Test) 문항을 김주환[21]은 한국문화에 실정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Korean Resilience Quotient-53;KRQ-53)척도를 만들었다. 회복탄력성 구성요소는 스스로의 감정과 충동을 통제할 수 있는 자기조절능력(감정조절력, 충동통제력, 원인분석력), 주변인들과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는 대인관계능력(소통능력, 공감능력, 자아확장력), 긍정적 정서를 유발하는 습관의 긍정성(자아낙관성, 생활만족도, 감사하기)으로 아래 표2-1과 같이 설명하였다[21].

표 2-1. 회복탄력성의 구성요소

Table 2-1. Components of resilience

핵심개념	하위개념
자기조절력	감정조절력 + 충동통제력 + 원인분석력
대인관계	소통능력 + 공감능력 + 자아확장력
긍정성	자아낙관성 + 생활만족도 + 감사

III. 공자의 회복탄력성 사례 분석

1. 공자의 회복탄력성 사례; 『史記』 『孔子世家』 및 기타 자료

1) 자기조절력

자기조절 능력은 스스로의 감정을 인식하고 그것을 조절하는 능력이 역경이나 어려움을 성공적으로 극복해 나가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으로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부정적인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감정조절력, 기분에 휩쓸리지 않으며 충동적인 반응을 억제하

는 충동통제력,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책을 정확히 찾으려내는 원인분석력이다.

어린 공자가 모친의 상중에 노나라의 실권자인 계씨가 사족 자제의 선비들을 초대하여 잔치를 베푸는 소식을 듣고 참석하고자 하였으나 계씨의 가신인 양호에게 저지당해 문 앞에서 문진막대를 당하였다. 『史記』「孔子世家」 “季氏饗士，非敢饗子也。”孔子由是退。선비 신분을 인정받지 못한 봉변을 당하였지만, 냉혹한 현실 앞에 좌절하지 않고 성장을 위해 조국을 떠나 배움에 매진하게 된다.

2)대인관계 능력

대인관계 능력은 타인의 마음과 감정 상태를 알아차리고 이해하고 공감함으로써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으며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인간관계에 가장 기본이 되는 소통능력과 공감능력,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 정도로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기 자신을 깊이 이해하게 된다.

제나라의 경공이 공자를 만나서 정치에 대하여 물었다. “군주는 군주답고, 신하는 신하다우며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자식은 자식다워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論語』「顏淵」 12-11

“君君，臣臣，父父，子子。” 이 외에도 『史記』「孔子世家」에도 볼 수 있으며, 인간관계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이다.

3)공정성

공정성은 스스로의 강점을 낙관적으로 바라보면서 잘 할 수 있는 일을 통해 보람을 느끼는 정도가 생활만족도이다. 긍정심리학에서 최상위 개념은 매사에 감사하는 태도로 주변인들과 감사를 나누는 것이다.

정나라에서 공자가 제자일행들과 길이 어긋나 당황하여 낮이 빠진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비유해 마치 상가지집 개와 같다. 라는 비방하는 표현을 들었지만 그렇다고 말하며 호탕하게 웃었다. 『史記』「孔子世家」 孔子欣然笑曰.

2. 공자의 회복탄력성 사례; 『논어』를 중심으로

1)호학(好學),-위기지학(爲己之學)

배우고 때때로 익히니 기쁘지 아니한가? 벗이 있어

먼 곳으로부터 찾아오니 즐겁지 아니한가?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않으니 군자답지 아니한가? 『論語』「學而」：學而時習之，不亦說乎？有朋自遠方來，不亦樂乎？人不知而不慍，不亦君子乎？

공자는 문(文)을 배워서 늘 쉬지 않고(時) 반복하여 몸에 익히면 진실로(亦) 기쁘지 않겠는가? 배움에 대한 열정, 열렬함으로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길을 향해서 나갔다.

공자는 “옛 것을 배워 익히고 새로운 것을 알아낼 수 있다면 얼마든지 다른 사람의 스승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 옛 것을 익히면서 다른 한편으로도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반면에 옛 것 깊이 파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새로운 이치를 찾아내어 배우는 것은 열성과 자질이 있기 때문이다.

공자는 스스로 배움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호학(好學)이라고 하였고, “10가구 정도의 작은 마을에도 충성스럽고 신의가 있는 두터운 사람이 있겠지만, 나만큼 배우기를 좋아하지는 못할 것이다.” 『論語』「公冶長」 5-27 “十室之邑，必有忠信，如丘者焉，不如丘之好學也” 즉 부지런히 갈고 닦는 사람을 지칭한 것이다.

벗은 뜻을 같이 하는 친구이다. 배움과 익힘을 통하여 개인적 차원의 기쁨을 느꼈다면, 친구와 함께 기쁨을 공유하여 즐거움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자는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였다. 상황에 맞게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군자의 선택이다.

2)시중(時中)-자기관리

공자는 나아가고 물러서는 때에 안연을 예로 들어 다음과 같이 자로에게 말하였다. 공자는 안연에게 “중용 되면 나아가 도를 행하고, 버림당하면 물러나 은거하는 일은 오직 나와 너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 『論語』「述而」 7-10 子謂顏淵曰 “用之則行，舍之則藏，唯我與爾有是夫”

자로가 “만약 스승님께서 군사를 거느리신다면 누구와 함께 할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였다. 일에 임하여 두려워 조심하며 계획하기를 잘 하여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자와 함께할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論語』 「述而」 7-10 子路曰 “子行三軍，則誰與”。
子曰 “暴虎馮河 死而無悔者 吾不與也 必也臨事而濯
好讓而成者也”。

자로가 물불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전진하는 용맹에
만 집착함에 자로에게 어떤 행동을 할 때에는 나설 때
와 안 나설 때를 분간해야 함을 알려주고 있다. 공자
의 행동윤리는 일률적 규범에 지배되거나 예측되니 않
고 시대 상황에 따라 최적의 선택을 하였는데 이것을
“시중(時中)의 윤리[22]라고 하며 처세에 대한 중요성
을 내포한다. 시중(時中)의 시의 적절함과 융통성은 다
분히 현재 지향적인 성격을 지닌다. 시중은 유가의 이
상적인 인간이 다양한 상황과 때에 적절하게 여러 도
덕적 덕성을 드러내는 능력과 연관된다.

3) 명(命)-자각(自覺)으로서 지천명(知天命)
공자가 나이 오십이 되어 비로소 천명을 알았다는 뜻
이다. 공자는 열다섯에 배움을 시작해서 오십의 단계
에서 천명을 알게 되고 칠십이 되어서는 말이나 행동
에서 자로 갠 듯 일정한 법칙과 규율이 자연스럽게 우
러나왔다고 하였다. 이러한 삶의 과정을 통해 공자가
내세운 인간형은 군자(君子)이다. 공자는 논어 마지막
장에서 군자가 알아야 할 세 가지 조건으로 명(命), 예
(禮) 말(言)제시한 후 끝맺었다.

공자는 군자를 통해 끊임없이 인(仁)과 의(義) 도(道)
의 정신을 가르쳐왔지만 공자가 지향했던 것은 결국
명을 모르면 군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V. 결 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자는 태어나서 삶을 마
감하는 순간까지 명시적인 성공을 이루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였기에 불우한 삶을 살았다고 혹자는 ‘실패한
사람’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의 회복탄력성을 분석해
보면 다방면에 걸쳐 높은 회복탄력성을 지니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공자의 최대 강점은 위기지학을 위한
공부와 가르침을 통해 체득한 자기충실과 이타주의,
삶의 승화로 표현되는 긍정정서이다. 탁월한 긍정성품
은 회복탄력성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아울러 공자의 주요 사상인 인과 충恕는 2,500년
이 흐른 오늘날에도 일맥상통하며 삶다운 삶의 중요한

요소는 사랑과 사람간의 관계의 질이 중요하다는 사실
을 확인시켜 주었다.

공자는 스스로 좋아하는 공부와 일(시와 음악을 통
해)을 통해 정서적 안정을 갖추었고, 잘 할 수 있는 일
을 찾아 원하는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낙관
적 성품과 긍정 유전자를 유지하며 노년에 이르러서도
‘몰입’하는 삶, 철저한 자기관리를 통해 하늘이 부여하
는 대로 수(壽)를 누리며 차원 높은 자아확장력으로
모든 것을 승화하였다.

References

- [1] Jeum-Nam, Kim and Yeo-Jin, Lim, “The Implications of Integrative Arts Therapy Approach in University Education in the Age of Human and Disaster”,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IJACT), Vol.10 No.4, pp 369-375, December., 2022. <https://doi.org/10.17703/IJACT.2022.10.4.369>
- [2] 『孔子家語 Confucius』
- [3] 『史記 History 』
- [4] Jeong-Geun, Shin, Confucius and his grandson make history and respond to the times. human pattern, 2015.
- [5] Chang-Ho, Shin and Kyung-Sub, Shim, Thought : Study of Confucius' personal maturity - Consideration of human development stages by ages of Erikson's "Psycho-social Stages" and "Positive Psychology", oriental studies, Vol.17 No pp.137-163. 2009.
- [6] 『論語 Analects』
- [7] Seligman, M. E. P, Positive psychology, positive prevention, and positive therapy,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 2, pp. 3-12, 2002.
- [8] Seligman, M. E., & Csikszentmihalyi, M, Positive psychology: An introduction. In Flow and the foundations of positive psychology pp. 279-298, 2014.
- [9] Seligman, M. E. P, Authentic happiness: Using the new positive psychology to realize your potential for lasting fulfillment: New York: Free Press,2002.(Translated by Kim In-ja. 《Positive Psychology》. Seoul: Mulpure., 2006.)
- [10] Sheldon, K. M., & King, L. Why positive psychology is necessary, American Psychology, Vol 56, No3, pp. 216-217, 2001.<https://doi.org/10.1037/003-066X.56.3.216>
- [11] Dahlsgaard, K., Peterson, C., & Seligman, M. E.,

※ 이 논문은 2023년도 호원대학교의 연구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Shared virtue: The convergence of valued human strengths across culture and history,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Vol. 9, No. 3, pp.203, 2005.
- [12]Seok-Man, Kwon, *Human Positive Character*, Hakjisa, 2011.
- [13]Tugade, M. M., & Fredrickson, B. L., "Resilient individuals use positive emotions to bounce back from negative emotional experienc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86, No 2, pp. 320-333, 2004.
- [14]Werner, E. E., & Smith, R. S., "Vulnerable but invincible : A longitudinal study of resilient children and youth", New York: McGraw Hill, pp 209-217. 1982.
- [15]Suniya S. Luthar, "Vulnerability and Resilience: A Study of High-Risk Adolescents", *Psychosocial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13, 1992.
- [16]Gillespie, B. M., Chaboyer, W., Wallis, M., & Grimbeek, P., *Resilience in the operating room: Developing and testing of a resilience mode*, *Journal of advanced nursing*, Vol.59, No.4, pp. 427-438, 2007.
- [17]Ju-Hwan Kim, *Resilience*. Wisdom House, Gyeonggi-do, Korea, 2011.
- [18]Hee-Jung, Kim and You-Kyoung, Lim, "The Relationship Between Psychological Well-being and Resilience in Child-care center Teachers",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5, No. 4, pp.321-328, November, 2019. <https://doi.org/10.17703/JCCT.2019.5.4.321>
- [19]Jeum-Nam, Kim, "The Effect of Resilience of Airline Outsourcing Employees on Job Satisfaction." *Journal of Hotel Tourism*, Vol. 19, No. 1, pp 158-174, February, 2017.
- [20]Reivich, K., & Shatte, A., *The resilience factor: Seven essential skills for overcoming life's inevitable obstacles*, New York :Broadway Books.,2002.
- [21]Woo-ryeol, Shin., Min-gyu, Kim & Joo-hwan, Kim.,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Resilience Test Index*, *Korean Youth Research*, Vol. 55, pp. 105-131.2009.
- [22]Seung-Goo, Jang "Confucius' way of thinking and public ethics", *Confucian Association, Confucian Ideological Culture Research* Vol.26, pp. 211, 2006.